

사회

광주·전남 高3도 '나이스' 오류 대혼란

수시 1주일 앞두고 지역 예비수험생 410여명 피해

석차·등급 변경 불가피... 학부모·교사들 혼신

정부가 운영하는 차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오류로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 2300여명의 1학기 성적이 잘못 산출돼 석차·등급의 변경이 불가피해 지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각각 고3 예비수험생 210여명, 200여명의 성적 처리가 잘못돼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제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성적 오류 2300여명 =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의 통보로 나이스 성적 오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고생 1300여명의 성적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고3은 210여명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성적오류가 발생한 고교생은 모두 1280명(28개교), 중학생은 20여명(2개교)이었다.

전남에서는 고3 200여명을 포함한 고교생 1000여명(35개교)의 성적에서 오류가 발견됐으며, 중학생은 단 1명이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측의 성적 재처리 결과에 따라 정확한 학생들의 성적 오류 규모와 석차·석차등급 변동이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전체 고교생 190만명 중 약 1%인 1만5000명~2만명의 석차

이러며 미리 문제를 알리지 않은 교육 당국의 대처를 문제삼았다.

광주의 한 고교 김모(40) 교사는 "수시에서 내신이 중요하고 약간의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데 오류가 있다니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며 "당장 대입을 앞둔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학부모도 걱정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학부모 강모(46)씨는 "가장 정확한 해야 할 성적처리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 교육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성적처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4/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나이스) = 전국 1만1000여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해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03년 개통됐다. 대입 전형 등 각종 입시 자료로 활용된다. 교사들이 학생의 성적·출결 등을 입력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 교사·공무원 142명 기소

광주지검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형렬)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활동을 하거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광주·전남 교사와 공무원 160명을 내사해 1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국공립 교사가 115명, 사립 교사 18명, 지방 공무원 9명으로 대부분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2008년 사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월 1만원의 당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에 가입한 공무원들에게는 정당법과 관련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공 보건의 등 정당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나 후원금 이체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소되지 않았으며 탈당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퇴직한 이들은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됐다.

한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지역 조직은 25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정치기권권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4/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등산 다녀오던 일가족 4명 사상

서해안고속도로... 진도 해상 선원 실종

주말·휴일 잇단 사건 사고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등산을 다녀오던 일가족 4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주말과 휴일 전남·북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23일 낮 12시20분께 무안군 동탄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km 지점 몽탄1터널 인근에서 산타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김모(여·47)씨와 딸(15)이 숨졌고, 남편인 심모(48)씨와 아들(16)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25분께 부안군

동진면 동진리 저수지에서 낚시객 김모(28)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119 구급대가 발견해 시신을 수습했다.

같은 날 오전 7시50분께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남동쪽 11km 해상에서 목포선적 22t급 어선에서 조업중이던 최모(52)씨가 해상으로 떨어져 실종됐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신안군 증도면 우전 해수욕장에서 피서객 박모(53·서울시)씨가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목포해경 인명구조요원이 발견해 구조했다.

4/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울퉁불퉁 도로... 사고 위험
광주시 서구 용동동에서 남구 화장동에 이르는 3km 가량의 도로 곳곳이 패인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들이 심한 불편을 호소하는 물론 사고 위험도 높은 실정이다.
4/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법원, 학원비 조정명령 첫 인정

학원비를 내리라는 교육청의 조정명령을 물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조정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B보습학원이 "주1회 290분 수업에 월 27만원 받던 수강료를 6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4/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법무부, 첫 약물치료 시행 시민단체 반발... 논란 예상

법무부는 24일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약물치료 법률은 작년 7월 마련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시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1997년)와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은 이미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가가 진단·감정을 거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며, 면접과 심리진·생리적 평가 도구를 함께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된다. 법률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이나 징역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4/연합뉴스

또 순찰차서 허튼 짓

경찰 스마트폰 게임하다 시민에 들뜸

또 다시 순찰차에서 나타낸 모습을 보인 경찰관들이 시민에게 포착돼 눈총을 받고 있다.

24일 광주동부경찰 자유게시판에 "쉬더라도 눈치 좀 보는 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주민은 "오늘(21일) 오전 10시께 동구 학동 한 병원 골목 정차된 순찰차 안에서 보초에서 앉아있던 경찰은 의자를 뒤로 젖혀 놓고, 운전석의 경찰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

을 지나가는데 (경찰이) 깨려와서 움찔하며 그냥 지나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게임을 한 적이 없으며, 우범지역 근무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밤에도 목포시 용해동 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서 40여분 동안 휴식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4/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니를 의심해?" 저금통 행방 놓고 골씨들

○원룸생활을 하는 연인이 수십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이 없어져서 서로를 의심한 끝에 싸움을 벌이다 경찰서행.

○2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1)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산수동 한 원룸에서 저금통을 손댔다가 파지는 여자친구 이모(31)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씨는 발로 차는 등 서로 다투다친 것.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든 이씨의 돼지저금통이 없어져서 다툼을 벌였는데, 저금통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경찰이 별도로 수사중.

4/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시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 TEL)011-602-2532
(광주중앙 신보빌딩,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산월C 교통광장 접코너
-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지도원 부지 매매

- ▶임야:47000평, 단층건물:250평(5동)
- ▶단지내 도로개설면 소나무, 산약초 재배단지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대 지: 250평(30×8코너)
- ▶가로32m, 세로26m(분할가능)
-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 ▶높 이: 8.9, 10.9m
- ▶호이스트: 유, 유, 유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금남로1기10층근린시설 대1252m2, 220131m2 감정가 240억 최저가 138억	양동5층근린시설 대195m2, 2801m2 감정가 69억 최저가 29억	오제동 [투룸] 대476m2, 23655m2 감정가 7억 최저가 4억	어수동역(8층오피스텔) 대549m2, 222510m2 감정가 1798천 최저가 998천	오제동4층다가구 대476m2, 23655m2 감정가 3억 최저가 399천	담양정화(주유저장소) 대1633m2, 2380m2 감정가 5억 최저가 198천	계림동7층오영방편 대837m2, 244084m2 감정가 32억 최저가 1494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p>☞ 목포요양병원 ☞</p> <p>▶대지 7867평 ▶건물 2510평 ▶감정가격 126억원 ▶매매가격 80억원(협의후결정)</p>	<p>☞ 광주옥동 공장 ☞</p> <p>▶대지 (지식경제부 임대) ▶건물679평 ▶감정가격 15억7천만원 ▶매매가격 9억5천만원(협의후결정)</p>	<p>☞ 광주용동동 하미스포텍 ☞</p> <p>▶대지 4073평 ▶건물 12943평(지하3층 지상12층) ▶감정가격 516억원 ▶매매가격 160억원(시설비별도, 협의후결정)</p>
<p>☞ 해남 명골골도 ☞</p> <p>▶대지 2284평 ▶건물 2654평(지하1층 지상8층) ▶감정가격 83억원 ▶매매가격 35억원(협의후결정)</p>	<p>☞ 곡성석곡 공장 ☞</p> <p>▶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감정가격 44억3천만원 ▶매매가격 20억원(협의후결정)</p>	<p>☞ 전북완주 봉동 공장 ☞</p> <p>▶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격 135억원 ▶매매가격 85억원(협의후결정)</p>

근린시설/원룸 김규석이사 010-6654-6888 숙박시설/상가 정이사 010-5879-0005 공장/토지 김태호전문이사 011-684-3886

<p>소재지 대12/건물 3977천</p> <p>부동산 대281, 21259 3977천 29억 주택2928건물</p> <p>오제동 대476, 23655 791천 39억 투룸 11세대</p> <p>남문동 대409, 211475 1195천 69억 원룸24실</p> <p>화산동 대264, 24992 791천 4억 원룸17실</p> <p>동명동 대219, 21492 498천 39억 4층고시원</p> <p>산수동 대254, 21787 591천 39억 편의점4층건물</p> <p>동명동 대201, 21140 397천 29억 3층원룸16실</p> <p>문흥동 대203, 21647 396천 29억 4층근린건물</p> <p>남산동 대126, 21342 291천 19억 3층근린건물</p> <p>두림동 대622, 21991 692천 29억 4층근린시설</p>	<p>소재지 대12/건물 3977천</p> <p>부동산 대221, 21732 591천 49억 5층오피스</p> <p>광안동 대232, 23834 596천 29억 5층오피스</p> <p>화동 대293, 21772 696천 29억 5층오피스</p> <p>대동동 대271, 23673 397천 29억 5층오피스</p> <p>백운동 대272, 211030 795천 49억 5층오피스</p> <p>월곡동 대91, 21327 591천 19억 2층일부</p> <p>금호동 대126, 21206 591천 19억 6층일부</p> <p>봉성동 대171, 23663 209천 89억 1층일부</p> <p>서산동 대156, 23913 295천 19억 지하1층</p> <p>쌍봉동 대241, 23690 996천 49억 3층일부</p>	<p>소재지 대1221, 23367 492천 19억 1922천</p> <p>부동산 대1148, 23643 997천 69억 2층공점</p> <p>옥동 대1699, 21463 796천 49억 2층공점</p> <p>담양부정 대2779, 23324 209천 79억 2층공점</p> <p>옥동 대2906 1597천 89억 중.건물매각</p> <p>정북동 대1570 391천 29억 공동산단인근</p> <p>양동동 대14734 796천 59억 전원주택</p> <p>양동동 대16114 199천 19억 2층</p> <p>향남동 대27849 796천 39억 김나수원</p> <p>양동동 대14121 192천 98억 배후수원</p>
---	---	--

아파트/빌라 명태진팀장 010-2634-3752 주택/재개발 양준혁팀장 010-3171-6536 근린주택 김찬승이사 010-8033-0114

병원, 교회, 사옥, 모텔, 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실전)과정' 2학기(15주) 수강예약 2011년 8월 31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